“총무원장 직선제 협의체 구성하자”

사부대중 연대회의, 16일 기자회견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가 3월 1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창립된 지 6개월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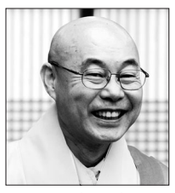
연대회의 측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총무원 집행부에게는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개정안 제출을, 불교광장 측에는 직선제 실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배현진 기자

태고종 중앙종회 집행부 종회의원 제명

총무원장 퇴진을 둘러싸고 태고종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중앙종회가종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119회 임시종회를 열고 종법 개정과 함께 “종법에 따르지 않고 종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수석부의장 지홍 스님 등 8명을 제명했다. 8명의 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7일 기각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이날 상정된 중앙종회법 등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도 못 채웠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덕현 기자

쌍계사, 선운사 주지 효명 · 경우 스님 임명


효명 스님


경우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쌍계사 신임 주지 효명 스님은 혜원스님을 은사로 1988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혜원정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계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운사 신임 주지 경우 스님은 지성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만일사, 청연사, 장경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5,1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종헌 개헌·법인관리법 개정 ‘화두’ 던지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 이모저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제201차 임시회가 3월 19일로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추대를 비롯해 다양한 종단 현안에 대한 안건 24개가 상정돼 처리됐다.

종헌 개정… 원로회의 인준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두 건이 1안과 2안으로 올라왔다. 1안은 찬성 57표, 반대 4표로 의결정족수 54표를 넘겨 가결됐으나 2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1안은 종정 자격 상향과 원로회의 명칭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는 ‘원로회’로 명칭이 개정되며, 원로회 의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규정했다. 또한 원로의원 자격에 맞춰 종정 자격 조건을 연령 70세 이상으로 상향됐다.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됐으며,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현재 상황을 고려해 삭제했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의 자격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안은 부결됐다. 의원 스님 중 일부는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대덕 · 혜덕, 승납 2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안이 부결됨에 따라 비구니 스님들의 법규위원 참여도 다시 좌절됐다.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된다. 지난해에도 원로회의 인준 과정에서 부결돼 종헌이 개정되지 못했다.

망실위기 흥룡사를 구하라

이번 중앙종회 회기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망실 위기에 놓인 흥룡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점이다.

흥룡사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말사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대웅전 등 법당이 4동에 이르고 여러 채의 요사채를 거느린 대규모 사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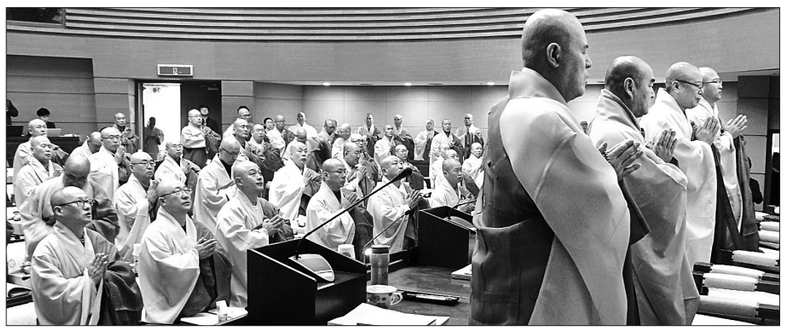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흥룡사는 토지불법임대, 2중임대, 토지불법처분과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지 스님들이 제적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주경 스님은 “20만평에 달하는 흥룡사 사찰 토지 경매가 있다. 현재 주지가 찾아와서 종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현재 본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종단이 나서서 사찰 망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중앙종회는 흥룡사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는 사찰 토지 망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 인원은 9명으로 중앙종회의원 7인과 총무부장, 재무부장이 참여한다. 실무위원으로는 총무원 실무자와 중앙종회 사무처, 별도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흥룡사 사찰 토지 매각 관련 현황 조사를 비롯해 사찰 토지 경매 등 우려 문제 해소, 사찰 토지 보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중앙종회는 3월 19일 속개한 201차 임시회에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7일 제201차 임시회를 열고 해인총림 방장 추대와 종헌 · 종법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19일 폐회했다.

원로회의 명칭 ‘원로회’로
종정 자격 70세로 상향
비구니 법규위 진출은 막혀

법인 분류 세밀화 ‘주문’
종헌 개헌 필요성 대두

종헌 개헌과 법인관리법 개정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미등록 법인의 재제 조치를 7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됐지만 숙제도 남겼다.

실제 의장 성문 스님은 법인관리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성문 스님은 “종헌 9조 3항은 1994년 개혁 당시 최고의 성과”라면서 “그간 종헌 9조 3항에 대한 적용은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 등에만 이뤄져 왔다. 장학재단, 복지법인, 학술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인관리법 내 법인의 분류는 현재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출연법인, 승려법인 등이다. 법인의 분류를 조금 더 세밀히 나눠서 사소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차기 종회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헌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역시 성과이자 향후의 숙제이다. 종회의원 범해 스님은 “종단 운영의 골간을 이루는 종헌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의장 성문 스님 역시 “정화불사 속에서 만들어진 종헌은 현재의 변화를 담아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종헌의 틀도 과감하게, 거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범종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종헌종법특위와 의장단이 충분히 상의해 차기 중앙종회에서 발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열린모임,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불신임’

3월 16일 법룡사서 결의대회
명성 스님 등 600여 명 동참
비구니회 “해종 행위” 반박도

비구니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 임기만료 7개월을 앞두고 열린비구니모임이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를 불신임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해온 ‘열린비구니모임’(이하 열린모임)은 3월 16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모여 전국비구니회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집행부 불인정에 대한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열린모임 소속 비구니 600여 명(경찰 추산 350명)은 전국비구니회가 법룡사 법당의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법룡사 앞마당에 모여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열린모임 측은 △전국비구니회 회장 불신임 △운영위원장 불인정 △운영위원회 불인정 △전국비구니회의 제16대 비구니 종회 의원 추천 불인정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했다. 회칙 개정의 건은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6장 운영위원회 제15조에 명시된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관련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내용과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집행부 부실장, 각 지회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회장 법륜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천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불법단체로 규명하고 비구니회관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며 “전국비구니회가 누구를 위한 비구니회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에는 6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했다.

원로로서 결의대회에 참여한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실수는 병가상사라 역지사지로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승려의 수행”이라며 “다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들의 법당이며 전국 비구니들의 선불장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를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모임은 결의 후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비상대책위의 위원장에는 열린모임 공동대표인 임대 스님이 이름을 올렸으며 14개 지역 준비위원장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열린모임의 결의대회를 해종행위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비구니회 집행부는 성명서를 통해 “열린비구니모임은 6개월여 남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 종단에 대한 해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중도적 입장서 민생 살펴달라”

자승 스님, 문재인 새정치 대표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문재인 새청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중도(中道)의 정치를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당 대표 선출되고 바로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찾아오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인사하면서 “현재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종교가 나서서 채워주고 있고, 특히 불교의 조계종이 세월호 참사부터 화쟁위원회 활동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종단 어른들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정치의 근본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무방소 명대승심(政無方所 命大乘心)’이라는 경구를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 재세당시에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정확한 주소는 없지만 대승적 마음으로 움직여하는 것은 맞다”면서 “대승에 이르는 것은 중도(中道)적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중도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너와 내가 모두 이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불교 측 인사를 비롯해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정세균 국회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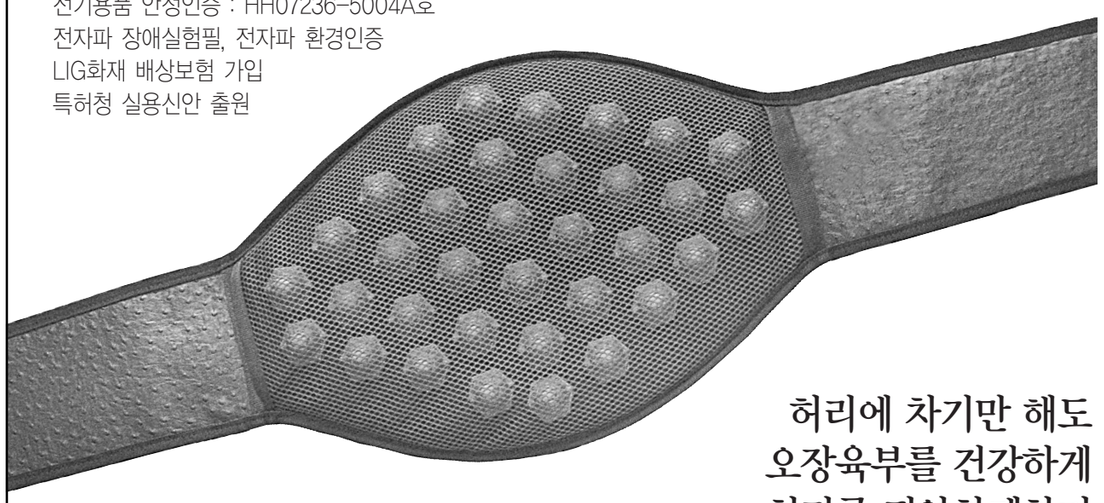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